

여수시, 해외 인플루언서와 ‘국제 이미지’ 강화

23일~24일, K-영향력자 팸투어 ‘Myk FESTA in 여수’ 홍보 목적 주요 관광지 콘텐츠 제작해 게재 “미국 등 15개국 여수 매력 알려”

전라남도 여수시가 23일과 24일 1박 2일간 해외 K-영향력자(인플루언서) 초청 팸투어를 추진하는 등 여수 국제 이미지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22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팸투어는 대형 한류 문화 축제 ‘Myk FESTA in 여수’의 사전 홍보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육성하는 15

개국 영향력자(인플루언서) 20명을 초청해 관광·문화·미식 등의 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영향력자(인플루언서)들은 여수세계박람회장 등 주요 관광지를 방문해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본인의 누리소통망(SNS)에 게재하면서 전 세계에 여수를 홍보하게 된다.

또 ‘MyK FESTA in 여수’를 비롯해 여행지로 추천할 만한 떠오르는 관광 명소와 차별화된 체험 요소들을 콘텐츠에 집중적으로 담아낼 계획이다.

시는 이번 팸투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입 확대는 물론 여수의 국제 이미지를 강화하고, ‘MyK FESTA in 여

수’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해외 영향력자(인플루언서)들이 직접 경험한 여수의 관광과 문화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생생히 전달될 것”이라며 “전 세계에 여수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MyK FESTA in 여수’는 오는 6월13일에서 15일까지 3일간 여수세계박람회장 스카이다워 뒤 특설무대 등에서 열리는 대형 한류 문화 행사로, 여수의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세계적인 K-팝 축제로 선보일 예정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고흥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

실태조사·지원사업·협력체계 구축

전라남도 고흥군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고흥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장기간 사회와 단절된 채 집 안에 머무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과 중장년층의 증가 추세에 주목해 마련된 것으로, 실태조사,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 포괄적인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고흥군은 은둔형 외톨이의 생활실태 파악, 심리·정서 상담, 교육 및 직업훈련, 자조 모임 등 사회참여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단계적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맞춤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 제정은 고독사 예방, 정신건강 증진과 함께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군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흥=심정우 기자

광양시, 마동현충탑공원 둘레길 보완공사 완료

전라남도 광양시는 동광양 그라운드골프장 방면 마동현충탑공원 둘레길의 낙석 위험 구간에 대한 보완공사를 완료하고, 해당 산책로를 전면 개통한다고 22일 밝혔다.

마동현충탑공원은 국가유공자를 기리는 현충시설이 위치한 장소로, 시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위해 자주 찾는 공간이다. 공원을 순환하는 둘레길 또한 시민 이용

률이 높은 구간이나, 지난해 여름 낙석이 발생해 일부 암반 사면 구간이 임시 폐쇄된 바 있다. 이에 광양시는 총사업비 4000만원을 투입해 해당 구간에 대한 보완공사를 추진했으며, 지난 4월7일부터 5월20일까지 진행된 공사를 통해 낙석방지망 보강, 방수포 설치 등 재해 위험 요소를 해소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완료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여수시, 공무원 사칭 ‘물품 대리구매’ 사기 주의 당부

전라남도 여수시는 최근 시청 소속 공무원이라고 사칭해 관내 거래업체나 소상공인에게 물품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최근 위조 명함을 사용해 자신을 시청 특정 부서 주무관이라고 소개하며 “급하게 필요한 물품이 있으니 대신 구매

해 달라”, “예산 처리가 곧 가능하니 선결제를 부탁한다” 등의 사기 행각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 직원에게 해당 사항을 전파하고 시청 누리집에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

보성군, 회천면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

전라남도 보성군은 최근 회천면 군농리 일대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 신속한 방제조치를 완료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소나무재선충병은 지난 4월 말 회천면 군농리에서 최초 확인됐으며, 군은 즉시 감염목 3그루 주변 20m 이내 소나무를 모두 제거하는 ‘소규모 모두베기’ 방제 작업을 긴급 시행했다.

이어 이달 중 추가로 발생한 감염목 10그루에 대해서도 지난 19일 방제를 완료했으며, 훈증처리 및 현장 잔존물 제거작

업도 동시에 실시했다.

보성군은 회천면 군농리를 포함한 울포리, 동율리, 화죽리, 영천리 일대를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감염목 및 매개충의 외부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 시 소나무의 생존율이 ‘0%’에 이를 만큼 치명적인 병해로,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에 의해 급속히 전파된다. 이에 따라 매개충이 나무 내부에 머무는 기간(매년 11월1일~5월31일) 안에 집중적으로 방제해야 한다.

보성=양종수 기자



지난 16일 고흥군 애플망고 재배 농가에서 생육단계에 맞는 맞춤형 현장 기술지도가 이뤄지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 애플망고 재배 농가 ‘현장 기술지도’ 강화

전라남도 고흥군은 애플망고 품질 향상과 안정적인 생산량 증대를 위해 개화기와 과실비대기에 맞춰 관내 애플망고 재배 농가 10여곳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고흥군은 따뜻한 해양성 기후와 풍부한 일조량 등 애플망고 재배에 유리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고흥산 애플

망고는 당도가 높고 향이 뛰어나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애플망고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유과기(어린 열매 시기)에 과실을 적정하게 따주어 과실비대가 높아지도록 관리를 해야 하며 생육 단계별로 적정한 온도 유지와 병해충 방제가 필요하다.

이에 군은 아열대 작물인 애플망고를 신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고자 현재 생육단

계에 맞는 맞춤형 현장 기술지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기술지도는 오는 6월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현장 기술지원을 통해 재배 초기 농가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품질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애플망고가 고흥 농업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흥=심정우 기자

장흥군, 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불법행위 예방 순찰 총력

CCTV·드론 활용 24시간 모니터링

전라남도 장흥군이 장흥댐 상수원보호구역의 청정 수질 유지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예방 순찰을 강화해 나갔다.

22일 장흥군에 따르면 장흥댐은 유치면에 위치한 다목적댐으로, 전남 9개 시군에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홍수조절과 하천유지용수 기능까지 수행하는 핵심 수자원이 다.

댐 주변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보호구역 내에서는 무단 어로행위, 낚시, 취사, 야영, 쓰레기 무단 투기 등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장흥군은 상수원 오염 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1일 2회 이상 매일 현장 점검 및 순찰을 하고 있으며 CCTV와 드론을 활용한 감시체계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 등 수질 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순찰은 주간 및 야간, 인적이 드문 지역까지 확대 시행하며 예방 중심의 계도 활동도 병행된다.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미한 위반 시에도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 법적 책임도 가볍지 않다.

장흥군 관계자는 “장흥댐은 단순한 지역 자원이 아니라 전남 서남권 주민의 생명수와 생업을 함께 책임지는 시설”이라며 “특정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 차단과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